

“비시즌 알찬 선수 보강...목표는 ACL 티켓”

해결사 데얀에 김재우·황태현 수혈 지적 아닌 지시... 조사장 조연 새겨 지도자 최상위 P급 라이선스도 보유 조현우 공백? 최영은·이준희 키울것

감독 대행은 애매한 자리다. 역할은 감독이지만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 감독만큼 말발도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꼬리표 달린 대행의 한계다.

감독 대행은 대개 시즌 중 감독이 자진 사퇴 또는 경질될 때 생기는 자리다. 그런데 올 시즌 K리그엔 출발부터 그 역할이 생겼다. 대구FC 이병근 수석코치(47)가 감독 대행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안드레 감독이 재계약 불발로 팀을 떠나면서 갑자기 중책을 맡았다.

남해에서 전지훈련 중인 이 대행은 11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구단에서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한다면 내게 부탁을 했다. 부담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채 시즌을 준비 중이다. 특히 조광래 사장의 도움이 크다고 했다. 이 대행이 꼽히는 조사장의 조건은 ‘지적’과 ‘지시’의 차이다. 이 대행은 “사장님께서 지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사령탑이 자꾸 지적만 하면 선수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이 떨어진다면서 지적은 코치가 하고, 감독은 선수단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가야 한다고 주문하신다”고 덧붙였다.

감독 대행은 갈림길에 놓인 처지다. 일



대구FC는 2020시즌을 이병근 감독대행체제로 치르기로 했다. 이 감독대행은 안드레 감독의 재계약 불발로 팀을 떠나면서 중책을 맡았다. 뉴스사

회성 소모품이 될지, 감독으로 승격할지는 하기 나름이다. 안드레 감독도 대행으로 시작했다. 2017년 5월 대행으로 시작해 이후 꼬리표를 떼고 2년 동안 대구를 이끌었다. 이 대행도 2018년 수원 삼성에서 대행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대구 수석코치로 합류한 이

대행은 지도자 최상위 자격증인 P급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이 노력하고 겸손하게 준비 하겠다”면서 “결국 프로는 성적으로 말한다. 성적이 좋아 평가도 따르게 된다. 좋은 성적을 위해 선수단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강조했다.

비 시즌 동안 선수보강은 잘 됐다고 했다. 그는 “다른 해보다 알찼다. 작년에 부족했거나 또 빠져나간 포지션에 보강이 잘 이뤄졌다”며 만족해했다. 중앙 수비수 김재우와 측면 자원 황태현 등 젊은 피 영입은 큰 수확이다. 또 특급 해결사 데얀의 영입도 성과다. 이 대행은 “작년엔 문전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했는데, 올해 데얀이 그걸 채워줄 것”이라며 강한 믿음을 보였다. 대구는 데얀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상 중인데, 에드가와와 투 톱도 고려 중이라고 이 대행은 귀띔했다.

대구FC의 고민 중의 하나는 팀을 떠난 골키퍼 조현우의 공백이다. 대구에서 워낙 인상적인 활약을 해 불안감이 없었던 거 맞다. 이 대행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밖에서 데려오기보다는 팀 내에서 성장시키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최영은과 이준희 등 젊은 골키퍼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최영은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조현우의 공백을 메우며 기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감독 대행도 어쨌든 시즌을 책임진 사령탑이다. 자신의 색깔도 있어야 하고, 목표도 세워야 한다. 이 대행은 “지난해 대구가 잘 했기 때문에 내 색깔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내 할 일”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도전이다. 그리고 팀으로선 도약의 시즌이다. 지난해 5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 ACL 출전권을 따내는 게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키트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4일간의 열전 스타트

7개 종목 922명 최대 규모 참가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1일 개막과 함께 14일까지 4일간 강원도 강릉, 춘천, 평창 일원에서 펼쳐진다.

선수부 및 동호인부 총 7개 종목(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파라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에 922명(선수 461명, 임원 및 관계자 46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대회의 개최식과 폐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회를 주최한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마스크, 손 소독제, 구강청결제 등으로 구성된 감염예방키트와 홍보포스터를 경기장에 배포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대회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대회 개최 전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 여부와 확진자 접촉여부를 전수 조사해 참가 여부를 확정지으며,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종목과 경기단체별로 보건담당자를 지정해 선수단 관리지원과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7일과 8일에 사전경기를 치른 동호인부 남녀 컬링(청각장애)에서는 서울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일정과 결과는 대회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뉴스 및 뒷이야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이재성 폴타임...홀슈타인 킬 2연승



이재성

홀슈타인 킬 이재성(28)이 11일(한국시간) 독일 킬의 홀슈타인-슈타디온에서 열린 다텔슈타트의와 2019~2020 분데스리가 2부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장트파울리를 상대로 선발 출장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선 킬의 최전방에 포진한 이재성은 폴타임을 뛰면서 날카로운 패스와 돌파로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맡았지만 공격포인트는 생산하지 못했다. 2경기 연속 폴타임 출장. 킬은 1-1 상황이던 후반 24분 터진 안니 투카 세라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따내고 2연승을 거두면서 6위에 랭크됐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깜짝 귀국한 손흥민의 서프라이즈 선물

짧은 휴식이 귀국 '드림 KFA' 등장 청소년들에게 직업 조언·추억 선물

한국 축구 '에이스'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축구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겼다.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FA)가 11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한 '드림 KFA'에 예고없이 등장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협회가 사회공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

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참가자로 선정된 중·고교생 25명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모여 대표팀 선수단 버스를 타고 파주NFC로 이동했는데 이 자리에 손흥민이 깜짝 등장했다.

6일(한국시간) 사우샘프턴과 2019~2020 잉글리시 FA컵 32강 재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16일 애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짧은 휴식을 맞아 일시 귀국했고, 협회로부터 행사 취지를 전달받은 뒤 흔쾌히 참가를 결정했다.



손흥민이 11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열린 '드림 KFA'에 예고 없이 등장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물론 손흥민도 약간의 보상(?)을 받는다. 이번 활동이 병역 특례자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그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544시간의 체육 관련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서의 활동도 필요하다.

사전 예고되지 않은 손흥민의 등장에 참가자들은 열광했다. 특히 이들의 이름과 희망 직업 등을 사전 파악해 맞춤형 조언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협회 관계자는 “학생들은 놀랄 것 없이 등장에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리그 중단 고민하는 V리그...공정한 잣대 뭘까

중계권·스폰서 계약 이행 등 차질 상·하위팀들의 입장 차이도 뚜렷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남녀 구단 단장들은 7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9명의 단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주장을 시작으로 '무관중 경기', '리그 중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만일 리그를 중단할 경우 뒤따르는 파장도 만만치 않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단장들은 모든 최종결정의 전권을 KOVO에 일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그를 중단할 경우 생길 중계권 계약위반 여부와 타이틀스폰서 등 후원회사와의 계약 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협의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갑작스럽게 V리그가 중단될 경우 파생될 문제의 대책을 마련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라는 뜻으로 보

인다. 사실 이 문제는 V리그 단독으로만 처리할 상황도 아니다. 비슷한 처지인 남녀프로농구, 곧 시즌이 시작될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골프 등과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고 정부 주무부서의 의견도 들어와야 했다.

11일에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산하의 국내 5대 프로스포츠 단체 실무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장,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체부 실무담당자들은 이미 지난 주 V리그가 벌어지는 장충체육관 등 현장에서 꼼꼼하게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지금은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 특정장소를 다녀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곳을 일정기간 폐쇄하고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처럼 됐다. V리그는 각 구단별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준비한 덕분에 아직까지는 관중 가운데 누구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기에 더 철저한



한국배구연맹(KOVO) 남녀 팀 단장들은 7일 긴급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논의했다. V리그 중단, 무관중 경기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V리그는 모든 경기장에서 입장 관중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준비와 사전 사후 방역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이 좌절된 구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의 시즌은 의미도 없고 하고픈 열의도 사라졌다. 하루라도 빨리 리그를 끝내고 싶을 것이다. 7일 모임에서 리그중단의 선제조치를 주장한 곳은 공교롭게도 성적 하위 팀의 단장들이었다. 반면 상위 팀들은 아직 상황을 더 두고 보

자는 쪽이 많았다. 우리카드 실무자는 최근 리그중단 얘기가 들리자 어디서부터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지 가장 궁금해 했다. 창단 이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 리그중단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만일 리그를 중단한다면 남은 시즌 경기는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한다고 치더라도 뻔뻔한 일정상 남은 경기를 모두 소화할 수 없기에 리그인정을 대폭 줄이거나 현재의 성적으로 시즌을 종료하고 봄 배구만 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 경우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조정은 쉽지 않다. 이 때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인 공정성이다. 현재의 상황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엄중한 경우냐의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막연한 공포에 질려서 리그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V리그의 내부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